

[5·31 지방선거]

■ 화제의 기초단체장 당선자 3인

음장 출신 천신만고 끝 현역 꺾어

담양군수

이정섭 당선자

“군민들이 아파하는 곳은 아무한테 주고 가려운 곳은 굶어 주면서 언제나 군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정섭(59) 담양군수 당선자의 말이다. 그의 당선은 전남지역 최대 이변으로 꼽힌다. 화려하지 않은 경력과 선거 초반의 열세 때문에 패배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그는 군민의 ‘심마술’을 자처하며 유권자에게 다가간 결과, 현직 후보에 신승을 거두고 4기 담양군정을 이끌게 됐다.



이 당선자는 담양에서 태어나 공무원 생활 대부분을 담양에서 했다. 담양군청 사회 복지과장, 봉산면장, 민원봉사과장, 담양읍장 등 그다지 고위직은 아니었지만 그는 언

제나 성실히 일했고 그 공로로 대통령 표창, 장관 표창을 도맡아 받았다.

이 당선자와 상대했던 최형식 후보와의 관계도 얘기거리다. 이 당선자는 현직 군수인 최 후보 밑에서 근무했기 때문이다. 그는 “그 때 느낀 군정의 문제점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출마했다”고 말했다.

그는 “결정권이 한 사람에게 집중된 중앙집권식 행정 체계는 독선으로 흐르기 쉽고 부패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책 결정을 혼자서 하지 않고 군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혜택이 군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78표차... '권토중래' 8년만에 컴백

곡성군수

조형래 당선자

“순간의 기쁨을 오늘로 끝내고 곡성의 미래를 위해 겸손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무소속 조형래(57) 곡성군수 후보의 당선도 최대 이변의 하나로 꼽힌다. 3선을 노리던 고현석 현직 군수의 아성과 민주당 바람을 뚫고 당선 영광을 안았기 때문이다. 그가 1995년 실시된 첫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초대 곡성군수를 지냈으나 그야말로



8년만의 권토중래인 셈이다. 그는 초대 군수를 지낸 뒤 이후 두차례 선거에서 연거푸

고배를 마셨다. 이번 선거에서도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는 파말리는 접전 끝에 78표차로 신승하며 실목했다. 조 당선자는 그야말로 농민이다. 또 현장의 농민운동가다. 한양대 법대를 졸업하고 귀향, 곡성농농우회 회장, 가톨릭 농민회 초대회장 등으로 활동하는 등 전남지역 농민운동의 선구자적 역할을 했다.

조 당선자는 “농업이 살아야 농민이 살고 지역경제도 살 것이기 때문에 농업 중심 정책을 우선 실천하고 지금까지의 관광·문화 정책은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3세번 징크스' 극복 유일의 3선

함평군수

이석형 당선자

“주식회사 함평의 최고 경영자로서 군민들의 삶의 질과, 소득을 높여 가난 때문에 고향을 등지고 떠났던 이들을 반드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형(47) 함평군수 당선자는 광주·전남지역 유일의 3선 단체장에 올랐다. 그토록 뚫기 어렵다는 ‘삼세번 징크스’를 극복한 것이다. 그것도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양당 구도 아래서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다른



3선 도전자들은 모두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유있게 민주당 후보를 따돌렸다. 이 당선자는 당선 영광을 함평군을 세계로, 미

래로 꼭 발전시켜 달라는 군민의 요청으로 풀렸다.

이 당선자는 1984년 전남대 학도호국단 총학생장 출신으로 KBS 광주방송총국에서 PD로 활동하다가 지난 1998년 선거에서 당선되며 기초단체장의 길을 걸었다. 민선 2기 왕성할 활동으로 함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그는 특히 함평 ‘나비축제’를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만든 광주·전남의 대표적 스타 군수다.

그는 “2008 세계나비·곤충엑스포를 반드시 성공시켜 역사 속에 함평의 이름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당 압승속 무소속 약진

광주·전남 당선자 들여다 보니

5·31 지방선거 당선자 분석 결과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등 지방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참패했고, 무소속 후보들은 대거 약진했다.

특히 민주당은 기초단체장의 55.6%, 광역의원의 91.4%, 기초의원은 64.3%를 차지해 사실상 광주·전남 지방행정과 의정 운영을 좌지우지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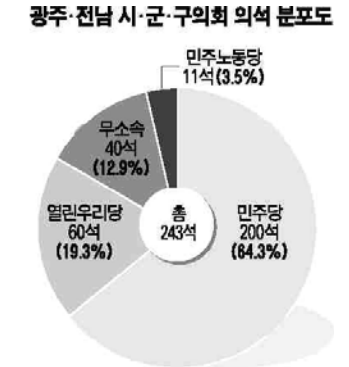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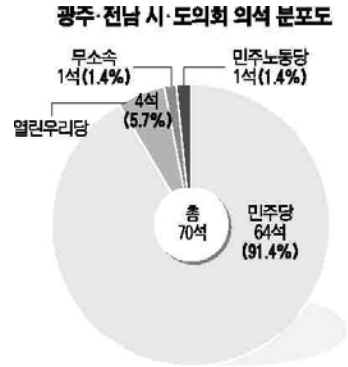
여성후보들은 인센티브가 부여된 비례대표 광역·기초의원에서는 선전했으나 기초단체장과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는 두터운 진입 장벽에 부딪혀 부진을 삼켰다.

◇정당별 분포=광주·전남 27개 시·군·구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은 15곳에 당선자를 냈다. 광주 5개 구청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들이 열린우리당 또는 무소속 후보를 모두 눌러 ‘쌍끌이’했다.

전남은 민주당이 목포, 여수, 순천, 광양, 강진, 해남, 담양, 보성, 고흥, 화순 등 10곳에서, 열린우리당은 무안, 완도, 진도, 구례, 영암 등 5곳에서 당선됐다. 무소속은 나주와 함평, 장성, 곡성, 장흥, 영광, 신안 등 7곳에서 당선자의 영예를 안았다.

광주시의원은 지역구 16명이 모두 민주당이고, 비례대표는 민주당과 우리당, 민노당 각 1명으로 총 19명 중 민주당 17명, 열린우리당과 민노당이 각 1명이 당선됐다.

전남도의원도 지역구 46명 중 민주당이 43명, 열린우리당 2명, 무소속 1명이고, 비례대표는 민주당 3명, 열린우리당과 민노당 각 1명으로 총 51명 중 민주당 46명, 열



민주, 27곳 중 15곳 당선 광주 단체장 '쌍끌이' 지방의원 60% 교체...광역·기초비례, 여성 다수

린우리당 3명, 민노당과 무소속이 각 1명씩으로 채워졌다.

광주지역 기초의원(비례대표 포함 68명)은 민주당 39명, 열린우리당 20명, 민주노동당 8명, 무소속 1명 등이었고, 전남지역 기초의원(비례대표 포함 243명)은 민주당 161명, 열린우리당 40명, 무소속 39명, 민주노동당 3명 등이었다.

◇지방의원 물갈이와 업그레이드=16명의 지역구 광주시의원 가운데 재선에 성공한 케이스는 6명, 46명의 지역구 전남도의원 가운데 재선에 성공한 의원은 19명으로 물갈이 비율이 60%에 달했다. 지역구 광역의원들이 전원 그대로 당선된 경우는 광주 광산구(3명)와 담양(2명) 2곳 뿐이었다.

기초의원 출신으로 도의원에 당선, 한 단

계 업그레이드한 경우도 7명이나 됐다. 제2대 전남도의원 가운데 민주당 박병중 의원과 무소속 강종만 의원은 단체장 선거에 도전해 각각 고흥군수와 영광군수에 당선됐다.

◇성별·연령별 구도=비례대표를 제외하고 광주·전남지역 여성 출마자(광역의원 이상) 10명 중 당선자는 민주당의 김성숙(광주 서구 3선거구 광주시의원) 후보 한 명 뿐이었다. 한영(한나라당) 광주시장 후보와 양혜령(열린우리당) 광주시의원 후보 등 9명의 여성 후보는 여성 진출의 높은 벽을 실감한 채 부진을 삼켜야 했다.

연령별로는 기초단체장 당선자의 경우 50대가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와 60대가 각각 6명씩이었다. 지방의원은 40대가 다수를 차지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당선자 분석해 보니

광주·전남에서는 해당 지역구의 현역 국회의원이 지원하는 후보가 대부분 패배하는 기현상이 일어났다. 또 3선에 도전했던 현역 기초단체장들은 대부분 낙선했다.

◇현역 의원 영향력 감소=광주의 경우 민주당 후보가 모두 당선됐다. 이는 7명 국회의원의 모두가 열린우리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민심이반 정도를 가늠하게 했다. 전남도 상황은 비슷했다. 해당 지역구 후보를 모두 당선시킨 국회의원은 민주당 이상열 의원(목포)과 신중식의 의원(고흥·보성) 정도. 민주당 한화갑 대표는 자신의 지역구인 무안과 신안에서 모두 패배, 영향력 감소를 실감케 했고 여수는 열린우리당 주승우·김성곤 의원 두 명이 출마했지만 민주당 후보에 패배했다.

또 열린우리당 우윤근 의원(광양·구례), 민주당 이낙연 의원(영광·함평), 열린우리당 서갑원 의원(순천)은 지역구 관리에

행정관료 대거 당선...전문가 집단 고배

소홀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행정관료 대거 진출=유대명 광주 동구청장과 김중식 완도군수는 행정과 출신으로 재선에 성공했다. 또 이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행정관료 출신 당선자는 전남도 행정부지사 출신의 민주당 송광운(광주 북구청장), 역시 전남도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를 지낸 민주당 오현섭(여수시장), 건설교통부에서 30여년을 근무한 민주당 유두석(장성군수), 기획예산처 부이사관 출신의 민주당 정중해(보성군수), 진도부군수를 지낸 열린우리당 박연수(진도군수), 광주시 기획관리실장 출신의 민주당 전주언(광주 서구청장) 등이었다.

◇전문가 집단 의사의 좌절=이번 선거에서 의사와 교수 출신 후보들은 대부분 실패했다. 영광군수를 노리던 의사 출신 민주당 정기호 후보와 동구 1선거구 광주시의원

에 도전하는 열린우리당 양혜령 후보가 뒤

심 부족을 보였다. 또 교수 출신의 한나라당 광주 남구청장 안영신(동강대) 후보, 열린우리당 목포시장 김정민(목포대) 후보 등도 아쉬운 패배를 맛봤다. 이 외에도 변호사 출신으로 광양시장을 노리던 열린우리당 서중식 후보와 광주 광산구청장에 도전했던 열린우리당 이상갑 후보 등도 좌절을 경험했다.

반면 최고경영자 출신 당선자로는 민주당 정중득(목포시장)·전영준(화순군수), 변호사 출신으로 민주당 노관규(순천시장), 언론인 출신으로 민주당 김석원(무안 제1선거구 전남도의원) 등이었다.

◇단체장 대목 물갈이=기초단체장의 경우 27명 중 15명이 바뀌어 절반 이상이 교체됐다. 특히 3선에 도전했던 현역 단체장 후보 중 이석형 함평군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3선 거부감에 물어야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Naeyoung English Institute (낙내영고시학원) featuring a '3-year 3-time' (3세번 징크스) slogan and listing various English courses.

Advertisement for Hyeonjae Vocational College (현대직업전문학교) highlighting 'All courses available' (모든 과정 재비상가능) and listing various vocational courses.

Advertisement for Mudoong English Institute (무등고시학원) promoting '6-month fast track' (6개월 첫진도) and listing various English courses.

Advertisement for Heat Well electric heaters, featuring a 'Boiler Control System' and 'Energy Revolution' (에너지혁명) slogan.

Advertisement for Hyeonjae Vocational College (현대직업전문학교) listing various vocational course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Kimyoung University (김영대학면입학원) featuring a 'Meet/Deet' (만남/이별) slogan and listing various courses.